

풀꽃은 날마다 시들어 갔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땅속의 물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풀꽃이 아무리 아침마다 몸 단장을 해도 싱싱해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시대의 우화

아 아침이구나. 커다란 정원의 풀꽃은 한껏 기지개를 켜었다. 그 바람에 새벽녘 푸름한 잎에 맺혔던 이슬이 굴러 떨어졌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

다. 어느새 풀꽃의 정수리 위와 하늘에 눈이 부시게 푸르렀습니다. 만약 풀꽃이 손을 내민다면 푸르른 물이 들 정도였

지요. 일년생 풀꽃은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늘 행하는 경건한 의식이었어요. 뿌리를 가다듬고 있을 깨끗이 하는 것은 풀꽃으로서 중요한 일이었습니

다. 푸른 풀꽃이 몸단장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름답기 위 해서였지만, 그러나 풀꽃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

있었습니다. 풀꽃이 고개를 숙였습니

다. 목소리가 조금더 뚜렷해졌습니

다. 풀꽃이 땅 속을 향하여 말했습니

다. 풀꽃이 땅 속을 향하여 말했습니

다. 풀꽃이 땅 속을 향하여 말했습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푸르른 하늘이

정원의 풀꽃들과 나무들이 기쁨을 하고 있었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난 저 납작 「빛고을」에서 왔단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땅이 드렸어요. 바람은 미소를 띠고 대담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빛고을」에는 나쁜나 아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풀꽃은 바람의 뿔뿔에다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날들이 희안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단편 연재□



글 : 이 유 범 <동문·소설가>
그림 : 전 범 식 <동문·삽화가>

그는 오늘도 일부터 기차를 놓쳤다. 그리고는 역 대합실에서 다음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한 시간 남짓을, 그 애매한 시간을 무료와 가벼운 흥분이 교차하는 가운데 잠깐잠깐 죽어 있었다.

기차통과 7년에 기차통근만 2년이 넘었다. 10년 가까이 세월 동안 그가 기차를 놓쳐본 일이라고 한 번도 없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벌써 기차는 남도통이 뒤에 재빠르게 달려 나가고 있었다. 그가 너무 천천히 걸었기 때문

이었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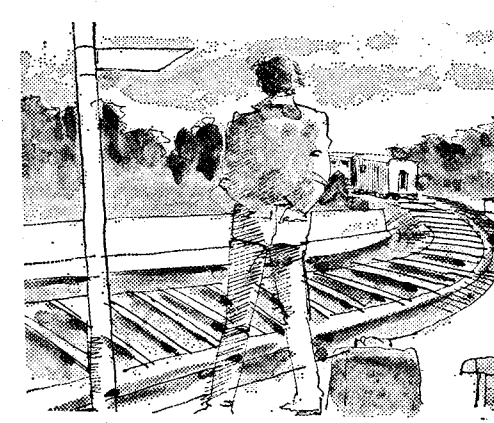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한다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포기에 따르는 무관심, 그것을 눈치챘을 때 그는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

것은 이제 떠나버린 사람이 다 떠나버린 땅 한 덩어리 대합실로 걸음 옮겼을 때였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맛보았던 배신감을 당자에게 되돌려줄

것이었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다. 풀꽃의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



어메이킹한 책

상황 인식과 우상 파괴

이 책은 「대학주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756호 (1982년 9월 27일자)부터 게재했던 「오늘의 한국 어떨게 될 것인가」라는 특집 시리즈를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지식인의 역할, 한국의 정치현실과 나아갈 방향, 한국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모색, 종교와 주체적 문화의 정립에 대한 것

이다. <경희대학교 출판국 323원>

문화운동론

70년대 말호 마당극 및 문화운동으로 대표되던 문화운동이 80년대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질적 변모를 조망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총체적 민중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 생존하는 실체로서 자리잡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적인 모습을 검토해 문화운동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조그마한 계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

이다. <도서출판 공동체, 323원 5백원>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상황 인식과 우상 파괴

이 책은 「대학주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756호 (1982년 9월 27일자)부터 게재했던 「오늘의 한국 어떨게 될 것인가」라는 특집 시리즈를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지식인의 역할, 한국의 정치현실과 나아갈 방향, 한국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모색, 종교와 주체적 문화의 정립에 대한 것

이다. <경희대학교 출판국 323원>

문화운동론

70년대 말호 마당극 및 문화운동으로 대표되던 문화운동이 80년대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질적 변모를 조망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총체적 민중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 생존하는 실체로서 자리잡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적인 모습을 검토해 문화운동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조그마한 계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

이다. <도서출판 공동체, 323원 5백원>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문화운동론

70년대 말호 마당극 및 문화운동으로 대표되던 문화운동이 80년대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질적 변모를 조망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총체적 민중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 생존하는 실체로서 자리잡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적인 모습을 검토해 문화운동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조그마한 계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

이다. <도서출판 공동체, 323원 5백원>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문화운동론

70년대 말호 마당극 및 문화운동으로 대표되던 문화운동이 80년대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질적 변모를 조망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총체적 민중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 생존하는 실체로서 자리잡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적인 모습을 검토해 문화운동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조그마한 계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

이다. <도서출판 공동체, 323원 5백원>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문화운동론

70년대 말호 마당극 및 문화운동으로 대표되던 문화운동이 80년대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질적 변모를 조망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총체적 민중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 생존하는 실체로서 자리잡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적인 모습을 검토해 문화운동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조그마한 계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

이다. <도서출판 공동체, 323원 5백원>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문화운동론

70년대 말호 마당극 및 문화운동으로 대표되던 문화운동이 80년대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질적 변모를 조망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총체적 민중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 생존하는 실체로서 자리잡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적인 모습을 검토해 문화운동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조그마한 계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

이다. <도서출판 공동체, 323원 5백원>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문화운동론

70년대 말호 마당극 및 문화운동으로 대표되던 문화운동이 80년대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질적 변모를 조망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총체적 민중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 생존하는 실체로서 자리잡고자 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적인 모습을 검토해 문화운동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조그마한 계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

이다. <도서출판 공동체, 323원 5백원>

깊은 밤 홀로 깨어나

정진규씨가 조지훈 시인의 생전 당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조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캠퍼스.

발길 닿는 곳 어디나 우리들의 캠퍼스- 밤새 불이 꺼질 줄 모르는 친구의 하숙집, 정계천 언변 고서점, 목조 계단 벚치는 카페, 훌쩍 떠난 여행길의 시골 정터. 혼자라도 좋고, 그녀와 둘이라도 좋다. 마음 통하는 여럿이 어울리면 더욱 신명이 난다. 그 어디에나 인생이 있고 젊음이 있으니,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으니.....

OB가 「만남」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신문을 통해 실시, 대학가에 숨향 화제와 갈채를 남긴 「만남」을 테마로 한 이야기 공모! 항상 젊음과 함께 하는 OB가 올해 다시 마련하는 이 웨스턴발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상

전국 남녀 대학생

내용

만남의 시간, 소개는 자유

길이

200자 원고지 5매 이내

기간

1985년 6월 30일까지

보내실 곳

충주 송지호 1가 100-1 주산빌딩 16층
OB백주 마케팅 부속과 752-2626

*소정의 심사료, 발원 본고는 상품권으로 선진 작품은 전국 대학지 광고를 통해 게재하며 소정액으로 저작권료 지급합니다.

대상

공상 (1명) : 파스칼 1대 (프린트) 제의
은상 (3명) : 파카르스탈제 (10만원 상당)
동상 (10명) : 코닥포켓 카메라

참가상

1) 라디스 다이제스트 6개월 구독권
2) 84 용보자집

*OB백주 이전공상 장학안내

OB는 여러분의 이전공상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매주 전지선과 가족여행을 보실 수 있으며 매주제조장점을 살려보신 후 OB백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연락처 : OB백주 소재지정보과 (Tel : 752-2626)

OB백주